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2월 1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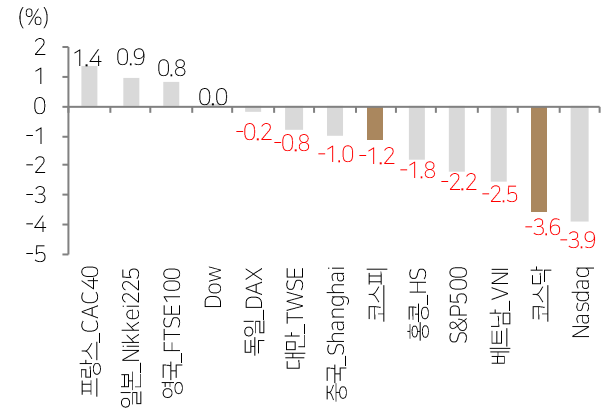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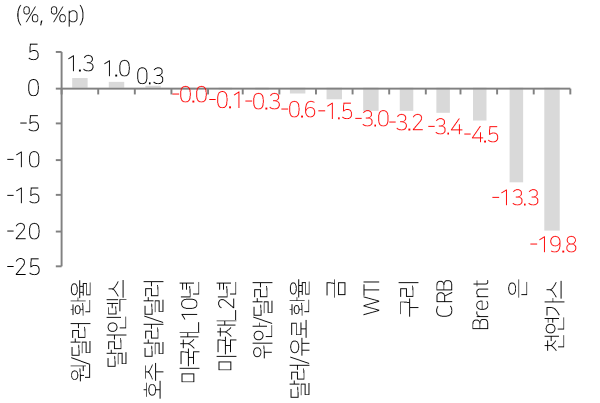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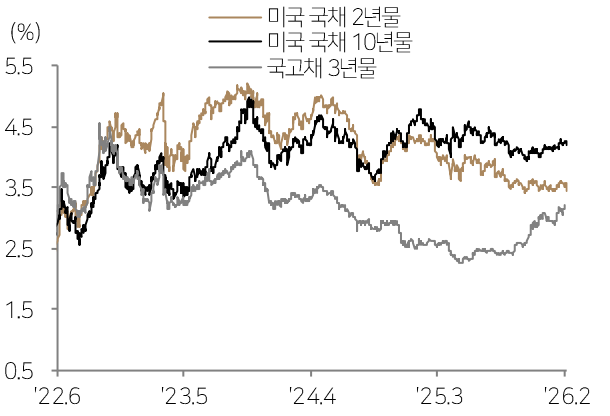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30일 대비 2/5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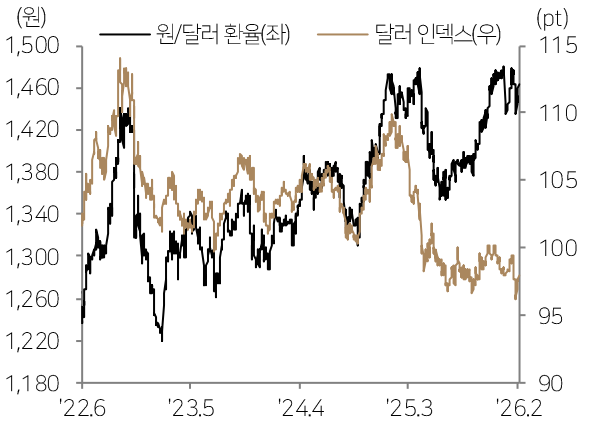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30일 대비 2/5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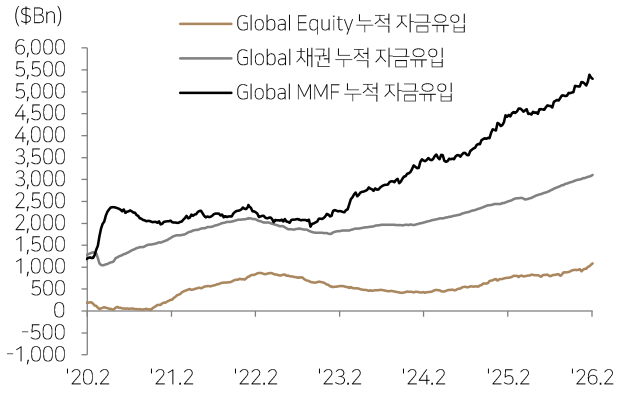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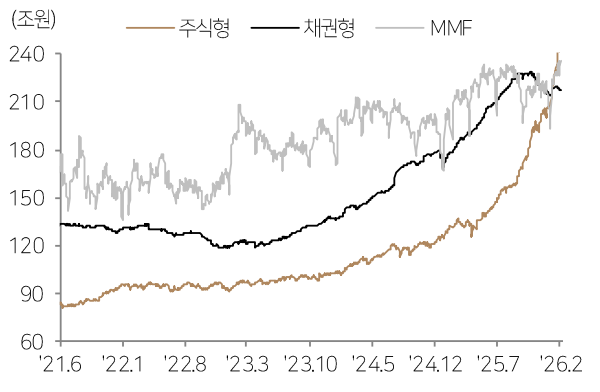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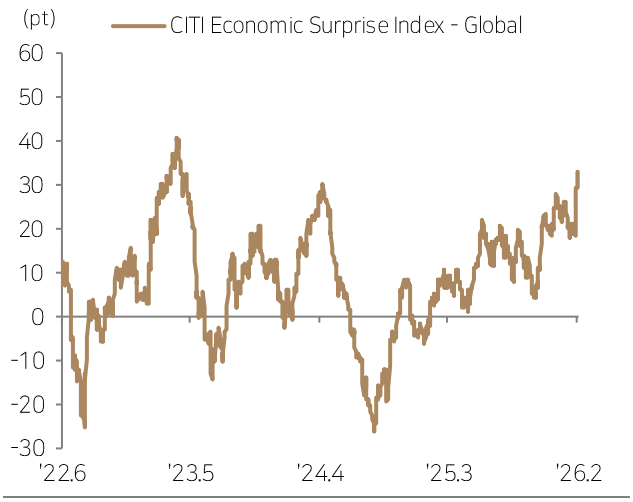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이민 단속 예산 문제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부처가 부분 셧다운 경험(1/31~2/3). BLS도 이 영향으로 업무가 중단되어 고용과 물가지표가 지연 발표될 예정. 금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용지표는 11일, 11일 예정이었던 물가는 13일로 각각 연기. 타 후보 대비 덜 완화적 정책기조로 알려진 워시의 지명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보다 나쁘지 않은 경제 현황 역시 긍정적 변수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음. 극적인 고용 급감이나 물가 급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듯. 단, 견조한 고용 상황이 재확인될 경우 섹터 로테이션의 근거로 작용할 개연성은 존재
- 10일까지 한국 수출을 통해 1월의 호조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 장기간 구정 연휴로 인해 2월 수출 총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나 일평균 수출 등이 견조하게 지켜진다면 변동성 상황 하에서도 주도주의 저가 매수 근거가 확보될 수 있을 듯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2-10	미국	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Index	99.7	99.5
2026-02-10	미국	12월 수출/입 물가지수	%mom	-/-	-/-0.1
2026-02-10	미국	12월 소매판매	%mom	0.4	0.6
2026-02-11	한국	2월 10일까지 수출/입물가지수	%yoy	-/-	5.5/0.3
2026-02-11	한국	1월 실업률	%	-	4.0
2026-02-11	중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8
2026-02-11	중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6	-1.9
2026-02-11	미국	1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만건	7.0	5.0
2026-02-11	미국	1월 실업률	%	4.4	4.4
2026-02-12	일본	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3	2.4
2026-02-13	유럽	4분기 2차 경제성장률	%qoq	-	0.3
2026-02-13	미국	1월 기존주택매매	만건	424	435
2026-02-13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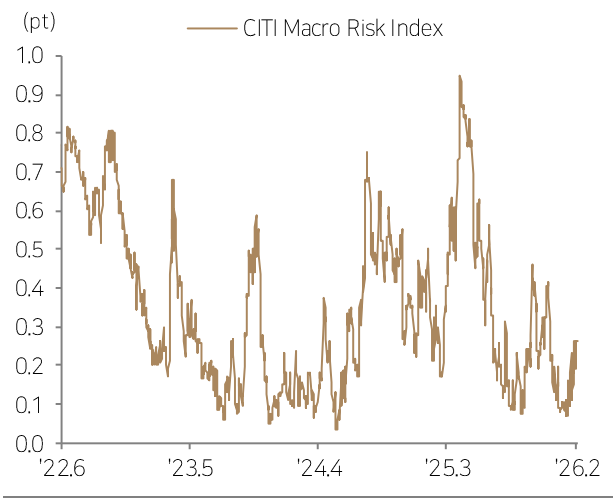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02/10	대만	상	TSMC 월간 매출액	▪ 1월 15일 발표된 4분기 실적을 통해 매출 1.05조 TWD, 순이익 +0.5조 TWD를 기록. 전년 비 각각 +20.5%, +35% 증가한 수치로 사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 ▪ AI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빅테크들의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전히 하드웨어,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실적 훼손이 나타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02/13	글로벌	중	세미콘 코리아 2026	▪ 2/11~13일 3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세미콘 코리아는 국내외 반도체/소부장 기업들이 신기술을 선보이는 반도체 박람회로 엔비디아, 램리서치, 케이던스 등 해외 반도체 기업 및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참석할 예정 ▪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면인 만큼 국내 반도체 및 소부장 기업들의 첨단 기술 발표에 따른 기술주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할지 여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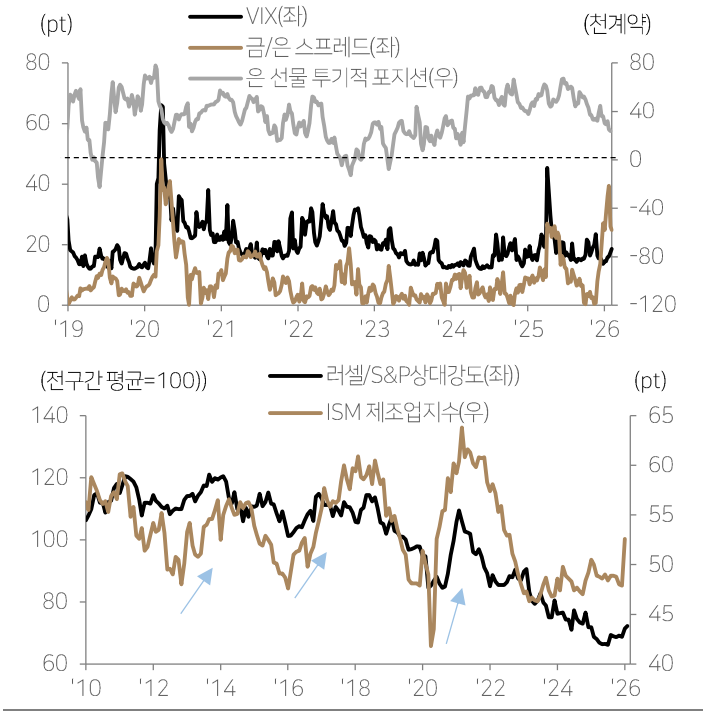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2/02~02/05) 증시 동향	▪ KOSPI(-1.2%), KOSDAQ(-3.6%) 하락. KOSPI는 은행(+7.6%), 소매(유통)(+7.1%), 호텔,레저서비스(+5.9%)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비철,목재등(-8.6%), 소프트웨어(-5.2%), 반도체(-3.5%) 업종 하락. 주초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MS의 부진한 실적, 엔비디아의 투자 보류 소식에 5,000선을 하회. 이후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와 삼성전자 사후 정산제 도입 등 호재에 반등하며 5,360선까지 상승. 주 후반 한미 원자력 투자 합의와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달성 등 호재가 있었으나, 생성형 AI의 소프트웨어 대체 및 AMD발 AI 성장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5,200선을 하회 마감 ▪ DOW(+0.0%) 강보합, NASDAQ(-3.9%), S&P500(-2.2%) 하락. 주초 케빈 워시 지명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우량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출발. 이후 인튜이트 급락 등 AI의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와 가상자산 변동성에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AMD의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가이던스로 AI 성장 우려까지 더해지며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
차주 (02/09~02/13) 증시 전망	▪ 높아진 지수대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주도주를 포함한 급등락이 거듭되며 피로를 누적시키고 있는 것은 불편하지만, 시장과 주도주의 펀더멘털에 변화된 내용은 없음. 그리고 유동성 환경 및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부담 역시 아직은 상정하기 어려움. 결국 기존 자료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최근 진행된 빠른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외생변수들의 자극에 의해 표출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 그러나 펀더멘털과 유동성의 상태를 감안할 때 깊은 가격 조정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기간조정 형태의 흐름 정도를 타진해 볼 수 있을 듯 ▪ 전략 측면에서도 생각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음. 반도체의 위상은 여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증시와 한국증시 모두 피로도가 표출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여타 모멘텀들을 활용할 수 있는 후보군을 활용한 초과 수익 추구가 필요해 보임. 지난 해 소비 부진의 기저가 역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국 인바운드 수혜까지 중첩되며 내수 반등 기대를 반영할 수고 있는 유통, 화장품, 의료기기, 호텔레져 등은 단기에 관심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가끔씩 볼만한 금/은가격 스프레드와 러셀/S&P 주가 스프레드



Source: Quantiwise, 다올투자증권

- 최근 은의 변동성이 확대. 은은 금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고, 연준 통화정책 우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등 다양한 내러티브가 붙음. 일부 대형 금융사들의 투기적 매매와 마진콜 우려도 제기되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 일단 최근 은 가격 급락 과정에서 투기적 순매수 물량은 많이 감소
- 금/은 가격의 괴리 확대는 시장의 투기적 심리 확산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금/은 가격 스프레드는 VIX지수 등과 유사한 궤적. 최근 동 스프레드 확대에도 불구하고 VIX의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고무적. 변동성 전이 조짐이 없다면 규모가 작은 은시장 자체적인 내홍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
- 최근 미국 증시에서도 기존 주도주 집중력이 약화되면서 순환매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 이 같은 순환은 기존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가격 격차를 인식시킬만한 트리거가 발생할 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1년만에 처음 기준선을 넘은 ISM 제조업 지수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

8일 실시되는 일본 총선, 과도한 감세에 대한 우려는 엔화 약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

정당	지지율 (%)	재정정책	감세공약
자민당 (중우)	*36.1*	- *성장 투자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 - *다년간 확장적 재정지출* - *안보관련 문서 개정*	- *식료품·음료 소비세 (8%) 2년간 면제*
중도 개혁연합 (반여권)	10.7	- 청년층 생활비 보조 및 주택 제공 - 사회보험료 인하 - 정부 펀드로 감세 보완	- 식료품세 영구 폐지 - NISA 추가감세 - 중/저소득자 추가 세액공제
국민민주당 (중우)	6.3	- 사회 보험료 환급 - 가계 실질구매력 방어 위해 세율, 임금, 물가 연동 방안 마련	- 소비세 5% 인하(임금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상회할 때까지)
일본유신회 (중우)	*5.2*	- *의료비, 사회보장기여금 삭감* - *급부형 세액공제 도입*	- *자민당과 동일*
기타 군소정당	20.8	- 전반적으로 확장재정+감세기조 주장 - 레이와는 현금직접지원까지 언급	- 전체 소비세 항구적 5%로 인하 - 식료품세 영구적 0% 등 큰 폭 감세
무당층	20.9	-	-

Source: 언론**보도 참조**, 다올투자증권

- 주말(8일) 일본의 조기총선이 있음. 이번 선거는 사나에 총리와 여당이 정책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단독 과반을 모색하면서 진행하는 선거
- 중의원은 총 465석이며, 이번 선거의 의석 수 라운드 넘버는 233석과 261석 그리고 310석. 자민당 측이 233석을 확보한다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261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의 과반이 가능. 310석까지 확보한다면 개헌발의도 가능
- 대부분의 정당들이 재정 정책과 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도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그러나 감세의 강도 측면에서 볼 때 자민당(현 여당) 측의 감세안이 그나마 부분적, 한시적이라는 관점에서 양호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듯. 결과적으로 233석~261석 사이 승리가 가장 무난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61석 이상으로 여당의 정책 수행능력에 대한 견제력까지 약화된다면 엔화 변동성이 역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